

## 올림픽과 建築士의 役割

다음은 오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건축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는 특집기획 가운데 첫번째 것이다.

이번호에는 먼저 올림픽준비를 위한 갖가지 사항 가운데 어느 것이 있으며, 특히 경기장시설이나 각종 문화 행사를 위한 시설, 그리고 부대시설

건립에 있어서 건축사의 참여가 왜 필요하며, 외국의 경우 건축사들이 해낸 올림픽 준비작업을 알아 봤다.

□ 도움말 : 崔昌奎회원 (신진건축대 표)

□ 자 료 : “都市問題” 5月號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발행

올림픽은 어차피 우리가 치뤄야 할 잔치인 이상 적정규모의 예산(돈)은 확보된다고 믿지만,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가장 큰 문제다.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고, 그들로 하여금 기획하고, 정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 □ 올림픽은 시설에 따라 성패 가름—외국인도 시설·환경으로 대상국 평가

올림픽은 인간이 해내는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한다.

또 올림픽은 단순히 치고 달리는 운동경기만을 위한 제전이 아니라 인간 본능의 발로인 스포츠를 주축으로한 각종문화행사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쇼” 공연행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 주최국이 보다 신경을 쓰는 것은 스포츠시설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치뤄 낼 공연장, 전시장, 위락시설 등과 이들이 끌어 나갈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올림픽 개최국의 문화행사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아래 <표-1>도 꼭 해야 할 중요한 행사만 열거해 본 것이다. 그밖에 대소행사의 수는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들만큼 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치뤄나가자면 뛰어난 시설이 우선 건립돼야 하며 시설능력에 맞춰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없다.

어느 부분적인 시설도 프로그램과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힘을 온통 기울여 세계에 한껏 자랑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세밀한 계획, 정확한 추진이 더 더욱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보다 앞서 올림픽을 치뤄낸 여러나라의 경우는, 올림픽을 치뤄기 위해 아예 대도시의 일각을 온통 허물어

1981년 10월, 서독 바덴바덴의 감격은 우리 국민에게 뿌듯한 감격과 자신감을 안겨 준 쾌거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개최는 한 마디로 선진국 끼리만 돌려가며 여는 부자나라의 거드름 정도로만 여겨왔던 우리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웅장한 스타디움, 화려한 입장식, 각종 문화행사, 갖가지 진기록, 수많은 인파 등으로 상징되는 올림픽 주최권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력을 세계가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점에서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해줬다.

### □ 올림픽 치루기 위해 우리 형편 소상히 살펴봐야

그동안 우리가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것은 안팎으로 알고는 있었으나 과연 그게 사실인가, 과연 다른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 발전을 한 것인가 하는 등등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밝혀 볼 수는 없었으며 또 밝혀 보려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해왔다고도 하겠다. 그러던 차에 우리의 성장과 능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준 것이 바로 바덴바덴의 그것이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과연 성

장했고 뿌듯한 힘이 갖춰져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가지씩 돌아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하고 격에 알맞은 옷을 입었으며, 신고 있는 구두는 말끔하게 닦여져 있고 쓰고 있는 모자는 낡은 것은 아닌가 등등...

사실 바덴바덴의 감격을 우리가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차림(?) 즉 올림픽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경쟁국보다 앞서 있었다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의 차림은 우리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준척도가 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덴바덴의 감격을 누리면서도 은근히 걱정한 것이 바로 우리의 차림 즉, 각종시설이 올림픽을 치룰만큼 완벽하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각종 스포츠시설이고, 이것이 얼마만한 규모로 얼마나 잘 꾸며놓느냐, 또 그 부대시설과 기타 각종환경 조성은 어떻게 해 놓느냐 하는 것이 당장 떠오르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해내는 데에는 우선 예산이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겠다. 그러나 88

〈표-1〉	(서 독)	로 개념정립	조직
동 경 (일 본)	• 일본 예술만 국한해 서 보여줌	• 세계의 교류, 국제적 차원에서 예술 행사 로 마련	• 오페라·발레등을 볼 쇼이극장. 선수촌·프 레스센터서 공연
	• 건축·미술·음악· 사 진·우표등 최고의 것 만 한정 소개	• 바바리아 지방의 민 속문화 소개	• 6,700여개의 행사실 시
	• 古—近代미술전시 1 개월	• 세계적 평가받는 예 술품 선별전시	• 42,000여명의 예술 가 동원 (1,190만명 관람)
	• 기타 행사는 올림픽 기간중 外国人·선수· 임원대상	• 文化部설치(문학·연 극·음악·미술·건축· 영화계인사참여)	• 관공이 문화 행사의 일종으로 실시
	• 매일 1~2회씩 문화 행사	• 선수촌근처에 “놀이 市場”만들고 120만 명 유치	로스앤젤리스 (미 국) • 南캘리포니아의 예 술자원 동원, 알차게 준비
	• 올림픽과 무관한 행 사도 계속	몬트리올 (카 나 다)	• 文化예술단체와 공 동으로 준비
백 시 코	• 올림픽史上 가장 다 채로운 文化올림픽	• 문화예술 통한 카나 다인의 생활상 소개	개막전 (84. 7. 27일)
	• 잉카文明을 배경으 로 한 文化 쇼	• 3,500명의 예술인동 원, 150만명 관람	에 하리우드 불에서
	• 外國의 참가도 최대 (39개 행사에 97개국 참가)	• 전통예술뿐만 아니 라 현대예술에도 力 点	국제적 고전음악과 무용공연, 기타 현대 음악공연
	• 1年계속 全國서 개최 (20개분야 552개 행 사)	• “自由型쇼”를 1,100 회 공연	• 종합무용제와 국제 영화 익스포지션, 연 극공연
	• 文化部 설치하고 각 국 참가 독려	모스크바 (소 련)	• 가면 퍼레이드, 올림 픽역사전, 박물관과 미술관의 특별전 준 비등
빈 헨	• 국제주의 문화 행사	• 소련 것만 보이는데 국한	
		• 문화프로그램위원회	

버리고 새로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정력을 보였는가 하면, 스타디움건립에 온 정성을 쏟아 새 시대를 표상하는 우람한 「이즘」의 산물로 표출해 내기도 했다.

아 물론 각국이 올림픽을 위한 투자는 돈으로 헤아리기 어렵고 쏟은 정성 또한 필설로 읊기도 어렵지만,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러한 「올림픽을 위한 일」을 해낸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참여한 전문분야는 건축관계 전문인들로서,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까지도 연관되어서 많은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즉 새 도시를 건설하고 우람한 스타디움을 세우고, 각종행사장 시설을 한 것 외에 개막 및 폐막의 세레모니(Ceremony) 까지도 건축사가 직접 참여한 예가 많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위해 개최국을 찾는 사람

은 우선 국적별로도 수십개국을 넘을 것이며 관람객 수로 생각할 때 내·외국인을 합치자면 그 수는 엄청날 것이다. 지난 72년 뮌헨 올림픽의 경우 관람인파수가 400만, 80년 모스크바의 경우는 1천1백90만명이 모여 들었다니 어마어마한 숫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 각국 올림픽준비에 건축사 역할 가장 커—이미지 심는 작업에 전문가 꼭 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 그들이 받는 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짐작케하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를 웅변해주는 환경의 조성부터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두말할 나위없이 유능한 행정가나, 음악가,

화가, 조각가의 일이 아니라 공간조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가 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각국의 올림픽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룰수 있도록 힘쓴 주역은 유능한 건축가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전(戰前)의 독일과 전후(戰後)의 독일을 비교해 해주는 서베를린의 올림픽경기장과 뮌헨의 올림픽경기장,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은 모두 건축가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건립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서베를린의 권위주의적 제3제국건축양식을 대표한 경기장과 전후 서독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퀀터 베니슈」의 뮌헨 경기장은 한나라(독일)의 전혀 다른 두개의 얼굴을 세계인에게 보여주었으며 실로 세계인을 공감케하는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위력이 한나라의 힘이며,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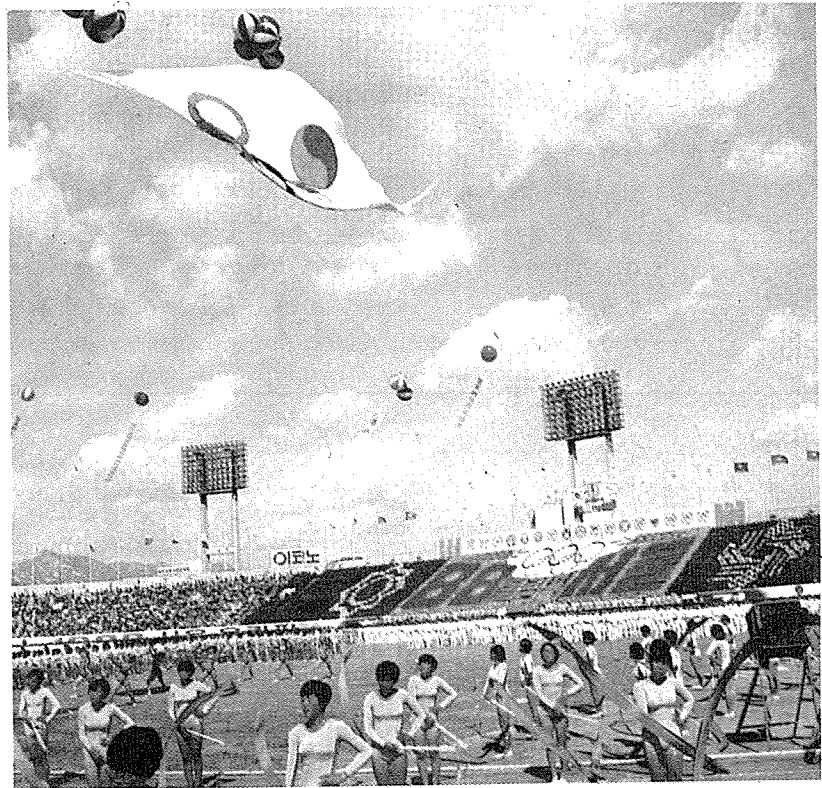
이고, 이상의 실제임은 당연하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건축가의 작업은 내국인에게는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며, 이방인에게 한 민족의 위대함과 긍지를 과시하는 일 자체임을 알 수 있다.

□ 시설물 건립 뿐만 아니라 세레모니도 건축사가 직접 도맡아 하기도...

올림픽과 관련되는 시설물만 건립하는 것만으로 올림픽을 다 치룰 수도 없겠고, 또 모든 계획을 건축가의 손에 의해 수립하고 집행 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건축가가 참여해서 해야할 일은 다른 분야의 그것보다 훨씬 비중이 큰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단 한가지 시설물을 계획하고 건립하는 작업 한가지만 해도 전체 준비사항 가운데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 마련된 종목별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2와 같다.



□ 올림픽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은 비단 관련 시설물을 건립하는데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것에 새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밖에 관련시설의 종류와 현황을 알아보면 <표-3>과 같다.

위의 표와 같이 경기장시설이나 관련시설 등의 현황을 보면 구상중인 것과 미완성인 것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 경기장 시설은 새로운 건축양식 창출해 내고, 한나라의 의지 표상해야

할 일이 쌓여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이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춰 집행해 나갈 것은 자명한 일이겠으나 경기장 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의 건립을 다만 "짓는다"는 것만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담긴 "그릇"으로 빚어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사들의 참여는 필연적이며 그만큼 할 일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겠다. 다만 기본적으로 올림픽을 위한 준비작업의 기본 명제가 예산의 적정사용, 국민의식의 정립, 한국적 고유의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선의 것을 창출해 내야 함은 물론이다(\*)

<표-2>

육상	서울종합운동장시설, 양호농구장충및 안양실내체육관(안양체육관 구상단계)
카누	한강조정경기장 겸용
펜싱	건립계획(경기대 체육관)
체조	신설계획
핸드볼	기존시설 이용
유도	착공예정
수영	기존시설 이용
승마	일부시설준비계획
궁도	기존시설 준비
요트	기존시설 준비
테니스	기존시설 이용
조정	시설불가피, 한강변 적당
복싱	잠실학생체육관
사이클	신설계획
축구	기존시설 이용
역도	기존시설 이용
하키	기존및 추가조정
레슬링	기존시설 이용
근대5종	기존시설 이용
사격	기존시설 이용
배구	기존시설 이용
탁구	기존시설 이용

<표-3>

선수촌	• 1만3천여명 수용시설 필요 • 서울종합운동장 부근에 건립계획 • 사용후 민간인에 분양고려
기자촌	• 외국인자 7천명수용능력 • 사후 분양고려 • 현 한국종합전시장 부근 고려
프레스 센터	• 약 8천명수용능력 • 기자촌부근 고려 • 구상중
방송 센터	• KBS와 협의 추진예정
조직 위원회	• 약 5,500명으로 계획
건물	• 설계공모중 • 사후 체육회로사용
유스 캠프	• 청소년 위해 1천 5백명 수용시설 갖춤 • 구상중